

#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월 5일 열린 '외국인노동자 문화축제 2005 Migrants Airtang(이하 문화축제)'에서도 불교계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가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이 곧 포교'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문화축제는 스리랑카와 네팔,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시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그러나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미약했다. '작은손길 아시아인권관련연대'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만이 네팔과 미얀마 공동체를 지원해 행사에 동참한 정도다. 나머지 12개 국가



문화축제에 참가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전통음악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영배 기자

## 외국인 문화축제 14개국 1만5천명 참가 성황 지원시설, 개신교 20·가톨릭 14·불교 2곳 대다수 불교국 출신...지원→포교로 연결해야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들은 불교계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냈다. 스리랑카 노동자 프렘체(32)는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를 등을 건립하는 등 불교계가 해외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의 노동자에게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리알씨(30) 역시 "안산지역의

실제로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은 개신교와 가톨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현재 종교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 40곳 중 개신교는 20곳, 가톨릭 14곳, 불교계 2곳이다. 최근 들어 조계종이 외국인노동자 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교를 신앙하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한국에서 타종교로 개종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화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끌려와야 하는 정부마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지금, 조계종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유철주 기자

## 경천사지10층석탑 이건기 빼내 국립중앙박물관, 조계종 요구 수용

5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조립·복원 중인 경천사지10층석탑 사리공에 사리가 아닌 이건기만을 안치한 데 대해 불교계가 반발, 6월 7일 뒤늦게 이건기(移建記)를 다시 빼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계종은 "사리를 넣는 공간에 사리는커녕 이건기만 넣어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탑을 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 규정하고, 6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물관은 불교계의 동의 없이 미리 구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안치한 지 12일만인 6월 7일 이건기를 다시 빼내고 복원작업을 재개했다.

김유식 학예연구관은 "사리공을 비워두는 것이 옳다는 조계종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8월 15일까지 복원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경북공 야외에 전시돼 있는 석탑 9점에 대해서도 현 상태 그대로 옮겨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8일 종무회의에서 종단의 요구대로 이건기를 빼냄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익순 기자

## 대흥사서 체험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대흥사에 가면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대흥사의 산사체험 새벽술길은 사찰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와는 성격을 달리해 문화체험 등 대흥사만의 독특한 색깔이 가미시켰다.

한국전통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산사체험 새벽술길은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에 진행되며 둘째주에는 남도문화체험 산사체험 새벽술길, 넷째주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산사체험 새벽술길 이 새로이 신설됐다.

갯벌체험, 들꽃길 걷기, 남도문화체험, 공통유적탐방 등 매일 색다른 주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유혹한다. (061)535-5775 강지연기자

## 연등축제 최우수상 '국제포교사회' 봉축위, 우수상에 도선사·능인선원 선정

불기 2549년 연등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위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지난 1966년부터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2000년부터는 외국인 등 만민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연등축제의 발전과 국제적인 축제로서의 위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를 불기2549년 연등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위에 선정한다"고 6월 9일

## 종교계 투명사회협약 동참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부문 대표자들이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에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종교인명명화회의(회장 백도웅·KCRP)는 6월 9일 종로 한일관에서 투명사회협약 설명회를 열고 종교인 대표들의 투명사회협약을 9월 경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투명사회협약설명회의 김경수 사무처장으로부터 투명사회협약 진행경과와 각 부문별 진행 현황을 보고 받은 각 종단 대표자들은 KCRP 내에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협약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 초에 열기로 했다.

유철주 기자

## "천성산, 미성숙한 민주주의 드러내" 동국대 흥윤기 교수 에코포럼서 주장

"한 비구니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밟지 못한 채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기록경기 하듯이 내던져야만 대한민국 시민의 공적 시선과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의사소통 구조'는 아직도 수준에 한참 미달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4일 열린 동국대 에코포럼 '제2회 쟁점심포지엄: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에서 동국대 흥윤기 교수는 천성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의사소통구조 탓이라고 분석했다.

흥 교수는 올해 초 지을 스님의 단식이 '국가와 사회가 의존하는 의사소통의 공적 체계가 온당한 작동 구

## 승가원 장애인복지관 수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중범)이 2007년 개관할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수탁 법인으로 선정돼 '장애인 특화법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성북구청이 5월 17일 위탁운영 심사에서 승가원을 위탁법인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승가원은 성북구청과 하월곡동 부지에 건설될 성북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설계중이며, 건평 6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체력단련실 상담실 치료실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공동작업장까지 마련해 전천후 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 "포교 원력 되살리자" 불광사 제2창건 선언

신도교육 강화·중창불사 계획

광덕 스님의 '도심대중 포교' 원력으로 창건된 서울 불광사 제2의 창건을 기치로 전면적인 중창불사와 대중포교에 나서고 있다.

불광사(회주 지홍)는 최근 법당이 있는 송파구 석촌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중창불사'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동안 신도가 지속적인 증가로 공간이 협

소해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현대화된 시설에서 수행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도회의 규모와 활동도 확연히 달라졌다. 매주 일요일회에는 2~3000명의 신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불광사 법당에만 1만명에 가까운 등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월 6일 평창 월정사에서 실시한 '2005년 봉축행사 회향 및 불

광 중창불사를 위한 정진발원 순례 대법회'에는 30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교육(4시간)과 기본교육(3개월), 불교대학(2년), 불교대학원(2년) 등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별로 조직된 법당이 자원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광사는 향후 '시민선방'을 개원해 보다 내실화된 수행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 해인동문화 장학재단 설립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회장 일민)는 6월 7일 이사회를 열고 해인사 동문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장학재단의 명칭은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현재 동문들이 실시할만대로 정성을 모아 4억여 원을 조성한 상황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 기금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장학재단 이사장 일민 스님은 "1200여 동문의 정성을 모아 후학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도움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선찰대본산 범어사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소원성취 하는 불자들의 기원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금번 본사에서는 자성의 빛을 밝히는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지장 백일기도 봉행 동안에는 각 재일(열흘에 한번) 마다 큰스님들을 모시어, 고승대법회를 개최하여 범어사를 찾는 불자와 부산시민들에게 귀하고 알찬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력 충만한 청정한 법문을 통해 어두운 마음의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더불어 인연 있는 선망부모 형제, 유주무주고혼의 영가들이 천도되는 기도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입 재 : 6월 24일(음 5.18) 회향 10월 3일(음 9. 1) - 총 11회 ◎시 간 : 오전 10시~ ◎장 소 : 설법전

입 재	초 재	2 재	3 재	4 재	5 재	6 재	7 재	8 재	9 재	회 향
6월 24일 (금 5. 18) 거유 대연사 범어사 조실	7월 3일 (토 5. 27) 월운 큰스님 봉선사 조실	7월 13일 (수 6. 8) 무진장 큰스님 前 포교원장	7월 23일 (토 6. 18) 연예 큰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8월 2일 (수 6. 27) 각성 큰스님 삼일불교교육원 원장	8월 12일 (금 7. 8) 정무 큰스님 前 용주사 주지	8월 22일 (월 7. 18) 예경 큰스님 법주사 회주	9월 1일 (수 7. 28) 거관 큰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9월 11일 (토 8. 8) 전운 큰스님 대흥사 조실	9월 21일 (수 9. 18) 보성 큰스님 조계종립 방장	10월 3일 (월 9. 1) 고산 큰스님 쌍계사 조실

## 대관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청산 梵魚寺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Fax. 051)508-3229 www.beomeosa.co.kr / beomeosa@hanmail.net